

보도시점 2024. 3. 6.(수) 09:00 배포 2024. 3. 6.(수) 09:00

2월 소비자물가는 3.1% 상승

-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.5% 상승

<'24.2월 주요 물가 지표>

(전년동월비, %)	총지수	식료품에너지제외	농산물석유류제외	생활물가지수	신선식품지수
'24.1월 → 2월	2.8 → 3.1	2.5 → 2.5	2.6 → 2.6	3.4 → 3.7	14.4 → 20.0

'24.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3.1% 상승(1월 2.8%)하였다. 작년 작황 부진으로 과일 등 농산물(전월비 5.7%, 전년동월비 20.9%)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, 최근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석유류(전월비 2.5%, 전년동월비 △1.5%) 가격의 전년 대비 하락폭이 줄어든 영향이다.

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비 2.5%(1월 2.5%)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. 한편, 가계의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비 3.7% 상승(1월 3.4%)하였다.

최근 중동 지역 불안 및 OPEC+의 자발적 감산 연장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고, 기상여건 악화 등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, 정부는 2%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. 특히,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 확대(3~4월 600억원), 수입과일 신속 도입, 비축·방출 등을 추진하는 한편, 석유류·서비스 가격 등 물가 불안 품목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.

* 국제유가(\$/B, 두바이유): ('23.9)93.0 (10)89.8 (11)83.5 (12)77.3 ('24.1)78.9 (2)80.9; (3.4)81.6

담당 부서	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	책임자	과 장	황경임 (044-215-2770)
		담당자	사무관	최봉석 (bongseokchoi@korea.kr)
			사무관	성지현 (jeeeeee629@korea.kr)

별첨 1

'24.2월 소비자물가동향 주요 내용

1. 주요 내용

1 [소비자물가] 전년동월비 3.1% 상승(1월 2.8%)

(%)	'23.2	3	4	5	6	7	8	9	10	11	12	'24.1	2
전년동월비	4.7	4.2	3.7	3.4	2.7	2.4	3.4	3.7	3.8	3.3	3.2	2.8	3.1
전월비	0.2	0.2	0.2	0.3	0.0	0.1	0.9	0.5	0.4	△0.5	0.0	0.4	0.5

- 농축수산물 물가는 과일 가격이 높은 가운데 주산지 기상악화 등으로 채소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동월비 상승(8.0→11.4%)

* 전월비 변화율(%): <농산물> 5.7 (채소) 6.8 (과일) 8.6 <축산물> △1.5 <수산물> 0.2

- 석유류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(전월비 +2.5%) 되면서 전년동월비 하락폭 축소(△5.0→△1.5%)

* 국제유가(\$/B, 두바이유): ('23.9)93.0 (10)89.8 (11)83.5 (12)77.3 ('24.1)78.9 (2)80.9; (3.4)81.6

** 휘발유 가격(원/l): ('23.9)1,769 (10)1,775 (11)1,684 (12)1,600 ('24.1)1,569 (2)1,615; (3.4)1,639
경 유 가격(원/l): ('23.9)1,666 (10)1,690 (11)1,628 (12)1,526 ('24.1)1,480 (2)1,518; (3.4)1,540

- 공업제품 물가는 수입승용차 신차 출시, 가구 등 일부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전년동월비 상승(1.8→2.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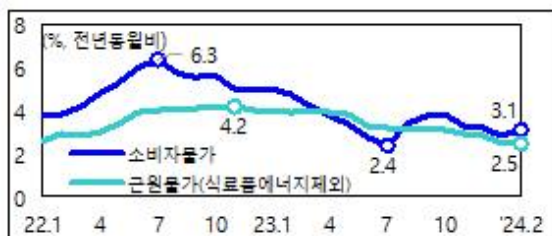
-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반적 둔화 흐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이 반영되면서 전년동월비 하락세 유지(3.5→3.4%)

* 개인서비스(% 전년비): ('23.7)4.4 (8)4.1 (9)4.1 (10)4.1 (11)4.0 (12)3.9 ('24.1)3.5 (2)3.4

품목별 전년동월비 상승률 및 기여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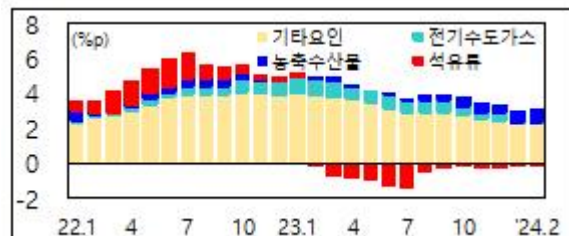
품목별	상승률(%)	전체	농 축 수산물	공업 제품	석유류	가공 식품	전기·가스 수도	집세	공공 서비스	개인 서비스	외식	외식 제외
'24.1월	전년동월비	2.8	8.0	1.8	△5.0	3.2	5.0	△0.2	2.2	3.5	4.3	3.0
	(기여도, %p)		0.6	0.6	△0.2	0.3	0.2	△0.0	0.3	1.2	0.6	0.6
2월	전년동월비	3.1	11.4	2.1	△1.5	1.9	4.9	△0.1	2.0	3.4	3.8	3.1
	(기여도, %p)		0.8	0.7	△0.1	0.2	0.2	△0.0	0.2	1.1	0.5	0.6

소비자물가·근원물가



* 자료: 통계청

물가 기여도



* 자료: 통계청

② [근원물가] 서비스 가격 안정화 등으로 전년동월비 2.5% 상승(1월 2.5%)

*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기준 근원물가로서,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변동분을 제외한 물가상승률로 458개 품목 중 식료품,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309개 품목으로 작성

(전년동월비, %)	'23.2	3	4	5	6	7	8	9	10	11	12	'24.1	2
식료품 및 에너지제외	3.9	4.0	3.9	3.8	3.3	3.2	3.1	3.1	3.1	2.9	2.8	2.5	2.5
농산물 및 석유류제외	4.7	4.7	4.5	4.3	4.0	3.8	3.7	3.7	3.5	3.2	3.1	2.6	2.6

③ [생활물가]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월비 3.7% 상승(1월 3.4%)

* 전체 품목 중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에 민감한 144개 품목으로 작성

(전년동월비, %)	'23.2	3	4	5	6	7	8	9	10	11	12	'24.1	2
생활물가지수	5.3	4.3	3.7	3.3	2.5	2.0	3.9	4.4	4.5	3.9	3.7	3.4	3.7

④ [신선식품] 신선과실·채소 가격 강세로 전년동월비 20.0% 상승(1월 14.4%)

* 신선어개(생선·해산물), 신선채소, 신선과실 등 계절·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

** 신선식품지수(전년동월비 % '23.12→'24.1월): (신선과실)28.5→41.2 (신선채소)8.9→12.3 (신선어개)20→1.4
(전 월 비 % '23.12→'24.1월): (신선과실)4.4→8.7 (신선채소)10.8→6.8 (신선어개)0.9→0.0

(전년동월비, %)	'23.2	3	4	5	6	7	8	9	10	11	12	'24.1	2
신선식품지수	3.4	7.2	3.4	3.8	4.2	2.2	6.6	7.6	13.3	13.7	14.5	14.4	20.0

2. 평가 및 대응

□ [평가] 2월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, 과일 및 채소류 가격 강세 등으로 3.1% 상승

○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월과 같은 2.5% 상승하면서 안정 흐름 지속(1월 2.5%)

< (참고) 주요국 소비자물가/근원물가 >

	한국		미국	영국	독일	OECD	EU
	'24.2월	'24.1월	'24.1월	'24.1월	'24.2월	'23.12월	'24.1월
소비자물가(% 전년동월비)	3.1	2.8	3.1	4.2	2.7 ^e	6.0	3.1
근원물가(% 전년동월비)	2.5	2.5	4.1	5.1	3.4 ^e	6.7	3.7

* e는 잠정치

□ [대응] 국제유가 변동성, 이상기후 등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2%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

○ 농축수산물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고 할인지원 및 수입을 확대*하는 한편, 석유류, 주요 서비스 물가도 집중 점검

* 3~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600억원 투입, 수입과일 30만톤 신속 도입 및 직수입 추진 등

별첨 2

주요 품목별 물가 안정방안

- ① (농축수산물) 농축수산물 비상수급안정대책반(반장 : 농식품부·해수부 차관)을 가동하여 품목별 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신속 대응
 - 3·4월 할인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최대 40%~50% 가격 인하
 - 오렌지, 바나나 등을 직수입(aT)하고, 과일류 3종* 신규 관세 인하
 - * 만다린(관세율 50→10%, 500톤), 두리안(45→5%, 1,300톤), 파인애플주스(50→10%, 수입전량)
 - 봄 대파 본격 출하(5월) 이전 대파 3천톤에 신규 관세 인하
 - 3~4월 중 약 204억원을 투입해 13개 과일·채소에 납품단가를 지원*하여 유통업체에 대한 판매가격 인하
 - * (배추)500원/포기, (대파)1,000원/kg, (토마토)1,800원/kg (사과)1,000원/kg, (감귤)500원/kg 등
 - 오징어는 정부비축분 300톤을 4월까지 상시 50% 할인공급하고, 민간유통업체 재고 200톤에 대해 방출명령 시달(수산물유통법)
- ② (가공식품)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국제원재료 가격 하락분이 식품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 강구
 - 주요 식품원료 관세 인하* 및 세제 지원**, 제분업체경영안정자금(4,500억원) 등 업계부담 경감 지원 병행
 - * 옥수수(210만톤), 대두(120만톤), 설탕(10만톤), 원당(수입전량), 감자·변성전분(19만톤) 등
 - **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확대(~'26년), 커피·코코아 수입부가세(10%) 면제(~'25년) 등
- ③ (석유류·서비스) 각 부처가 지속 점검, 불법·편승 인상에 엄정 대응
 - 유류세 인하 연장(~4월)과 함께,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3월 매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집중 가동
 - 지자체별 학원비 초과징수 사례 적발 시 과태료 등 엄정 조치
- ④ (구조 개선)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을 지속하면서 유통구조 개선 병행
 - 편법 인상이 없도록 제품 중요사항 변경 시 고지 의무를 부여(3월) 하고, 식품·유통업계 대상으로 자율협약 이행 점검
 -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*, 수도권 알뜰주유소 추가 확대 등 유통구조 안정화 병행
 - * APC 460개소 전부 가입(~'24.3월), 취급품목 확대(소고기, 콩, 스테비아토마토 등, '24.下) 등